

석유공사 아시아 석유CEO포럼 개최

한국석유공사(대표 강영원)는 아시아 국영석유회사(NOC) 최고경영진을 초청하는 <Asian NOC CEO 포럼>을 7월19-21일 서울 위커히호텔에서 개최한다.

NOC CEO 포럼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신아시아 협력외교 추진 및 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·중국 및 아시안 자원부국들과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 논의를 위한 것으로 지식경제부, 외교통상부, 해외자원개발협회, 가스공사와 일본 JAPEX가 후원한다.



NOC CEO 포럼에서는 2010년에 이어 <인류, 환경, 에너지 그리고 아시아 NOC> 테마를 가지고 8개국 15개사 NOC CEO 및 대표 약 50명이 아시아 NOC로서의 역할 및 석유개발 분야에서의 공동협력 등을 의제로 주제발표 및 토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.

아울러 탐사하지 않은 지역(Frontier) 등 상호 관심지역에 대한 석유가스기업의 기술·경험·정보의 공유, 공동평가 및 공동참여 방안 모색, 아시아 NOC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공동의 성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
특히, 포럼기간에 현대건설, 현대중공업, GS건설, 대우인터내셔널, SK, STX, 코오롱, 삼성물산, 현대산업개발,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NOC CEO간 수많은 개별 면담을 주선회 플랜트 수출·건설·금융 등 국내기업들이 아시아 자원부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2011/07/20>